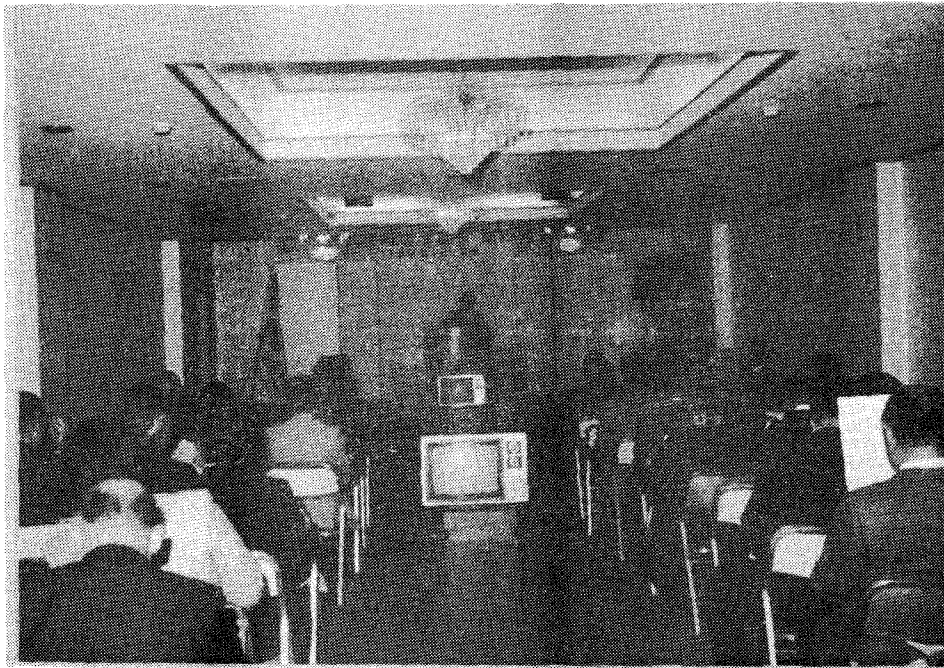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 城北區 安岩洞
 5 街 134-58
 電 話：923-4372

本會 88 年度 定期總會開催



韓會長이 開會辭를 하고 있다.

本會는 지난 2.26 洪陵에 있는 世宗大王紀念館에서 88 年度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지난해의 事業實績, 豫算決算報告와 새해의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審議 議決하였다.

이날 總會에는 定期案件 以外에 山地 除草劑 使用에 관한 林業研究院의 擔當官 (김중원, 김도경) 으로부터 試驗研究發表가 있었는데 요즘 農村人力 不足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省力化를 期할 수 있는 課題라는 點에서 會員들이 매우 높은 關心度를 나타내었다.

- 관련기사 別項 參照 -

山林所得事業 採算性 맞도록 支援을



韓 榮 錫 會長

오늘 우리 88年度 定期總會를 開催함에 있어 遠近을 가리지 않고 많이 參席해 주셨음을 매우 고맙게 生覺합니다.

今年은 國家第3次 山地資源化 10年計劃事業을 施行하는 1次年의 해입니다.

今年度 山林廳의 歲出豫算을 보면 845億 원으로 昨年 623億 원에 비하여 36%가 늘었습니다. '86과 '87을 비교하면 增加率이 4%에 불과 했었는데 36%가 늘었다는 것은 政府가 이제 山林의 重要性을 認識해 重林政策으로 轉換하고 있음이 事實로서 證明돼 가는 것이며 우리는 要路에 間斷없이 이의 主張을 해 왔었으나 山林廳長과 關係官 여러분이 奮闘하신 結果로서 우리는 勞苦를 높게 致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10年計劃의 內容을 보면 過去의 山林荒廢 綠化事業期를 벗어나 이제는 本格的으로 山地를 資源化의 마당으로 木材自給을 서두르며 附帶林產業의 振興으로 새로운 經濟林業追求와 國民의 保健을 위한 環境林業을 調和있게 發展시켜 나가며 山村에도 所得向上으로 文化的 定住社會로 誘導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直接的으로 連關이 있는 部分을 要約하면 從前의 林業行政이 山林保護側面의 規制爲主에서 助長行政으로 轉換됨을 強調하고 時代에 迎合할 山林法을 새로히 改正하며, 保全林地 200萬ha에 林業振興促進地域設定으로 資金稅制 技術指導를 集中的으로 支援, 林道의 大々의 開發과 林業機械化, 篤林家의 施業自律化, 山林組合의 山主中心의 改編으로 任員의 選出制 山主 事業者 組合費 負擔의 運營自律化, 法에 따르는 經營林의 保護와 世襲 林業誘導 事業豫定者를 위한 山林稅制改善으로 所得稅·法人稅·相續稅·贈與稅·讓渡所得稅·地方稅를 非課稅로 推進하되 不得已하면 最低限의 課稅로 法改正에 注力, 山林災害 共濟制度 樹立, 法定制限林 補償制度 確保 등을 計劃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방대한 計劃입니다. 우리는 山林廳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의 實現을 渴望하고 또한 우리들의 責任도 重大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仰請의 말씀도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山林經營이 왜 不進한가? 過去 行政規制가 까다로워서 뿐만은 아니요, 長期事業에 採算性 問題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山林經營을 旺盛하게 이르게 나가자면 山林經營 收益이 最低限 制度金融의 長期性預金利子 정도는 실히 確保될 수 있도록 每年 山林廳이 山林經

營實態調査의 收益分析을 하여 公示를 하고 預金利子에 未達되는 收益欠陷을 山林經營에 施業費 補助로서 國家가 補填 補充을 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山林開發基金 財政投融資資金도 造林 育林에는 年利 3%이하로 낮추어야 하며 山林評價制度를 確立하여 投資費를 認定하고 收穫計劃을 勘案한 企業鑑定으로 擔保力을 增長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山林組合 改編에 있어서 山林契를 里洞單位로 維持하지 말고 面單位 內外로 山林經營者와 山主·附帶林產業者·有實樹 또는 特種樹 保有農家 里洞 代表者들로 構成하여 全國山林이 完全한 經營化·協業化가 이루어져야 하며 事務所 設置와 技術職 人件費 運營費는 農村指導所 體制와 같이 國家가 支援해야 할 것입니다. 全國山主들에게 山林組合費 徵收復活을 稅制化하여 活用함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세째, 山林稅制改善은 200萬ha의 林業振興促進地域 뿐만 아니라 環境林業에 屬하는 地域·準保全林地도 法에 따르는 經營林地는 稅制惠澤이 있어야 하며 法人의 造林 育林 林道開設의 費用 또는 이에 使用하기 위하여 準備한 金額의 損金算入을 全篤林家에게도 適用되게 하여야 하며, 法人에게 山林經營事業用으로 山林地를 讓渡하는 讓渡者의 讓渡所得稅와 附加稅 減免도 全篤林家들에게 讓渡할 때도 같은 惠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째, 山林災害 共濟制度는 全國山主의 義務加入으로 財源을 마련하되 山林組合費 稅制에 包含되어도 좋겠습니다.

다섯째, 法定制限林 補償問題 推進을 大歡迎합니다.

지금 自然公園法上에는 育林 擇伐등이 許容되고 있으나 山林現場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報告되고 있습니다. 自然公園에는 林業技術職이 任用되어 圓滑한 造林 育林 林道開設 施業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世界 어느나라도 伐齡期를 延長은 하고 있으나 特別自然觀察地點을 빼 놓고는 自然公園 目的에 危害롭지 않는 限 充分한 施業 收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解決도 林地를 企業鑑定에 의한 代價補償의 國家買收를 하든가 施業自律化를 大幅的으로 許容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林相이 훌륭한 木材生産地帶에서는 篤林家들이 木材生産業을 겸하여 事業費調達을 하며 山林經營에 熱心하고 있으나 아직도 나무 한구루도 심지않은 木商들의 亂立으로 困境을 겪고 있다는 바 政府에서는 木材流通構造의 單純化와 篤林家를 도우기 위하여 木材 大需要家인 製紙工場·鑛山등에 篤林家에 限해서 木材納品을 받도록 勸獎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의 制度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國有林 造林貸付林에 관해서 篤林家들은 湄초 政府가 造林成功을 하면 無償讓與를 할 수 있다하여 無償讓與해 온 慣例에 따라 成功地의 無償讓與를 強力히 바라고 있는 바 이의 解決에 있어서는, 分收契約 轉換으로 1次에 限해서 延長 再契約을 할 수 있다고 한 規定을, 行政指針에 合格되는 經營林地는 契約延長을 制限없이 延長하게 할 수 있게 하든가 貸付料 納付 實績

과 造林勞苦를 考慮하여 適切한 價格으로 受貸付者에게 拂下하여 즐거움을 希望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篤林家 重鎮들이 보기에는 山地資源化 10年計劃事業에 事業物量이 不足하고 國家·地方豫算投資도 선소하며 勞賃費도 現實을 따르지 못하여 山林躡進이 어려움지 않을까? 念慮하고 있는 바 이의 策定에 있어서는 현재 國民이 造林 育林을 하려들지 않고 있기때문에 實行可能的인 安定線 策定으로 理解되나 위에 言及과 같이 山林經營에 銀行 長期性預金利子 정도만이라도 確實하게 確保될 수 있게 國家가 支援을 하면 國民의 呼應度가 높아갈 것으로 이의 擴大改編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아홉째, 林政의 重要計劃은 미리 時差를 두어 關聯團體에 諮問 建議를 받아드려 民意收斂을 바탕으로 樹立함이 民主化時代에 國民參與意識을 높이고 當局이 國民和合의 尊敬을 받을 것으로 思料됩니다.

會員여러분!

世界의 先進國들은 우리와 같이 國土가 협소하고 人口가 過密한 나라도 國民 1人당 20 ㎡ 이상의 樹木環境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山林環境은 國民 1人당 5 ㎡ 미만의 초라한 環境속에서 生活하고 있습니다.

山林의 育成은 곧 國力의 象徴 이므로 山林이 隆盛해야 나라가 富強해지며 文化先進國을 이룰 수 있음을 깊이 省察하여 國家 第3次 山地資源化計劃事業의 成功이 꼭 이루어지도록 山林經營에 精誠을 다 하십시오.

1988年 2月 26日

會長 韓 榮 錫

헝사지는은체

산지 제초제 탄생!
헝사지는은체는 조림목의 생장을 해치는
잡관목을 고살시키는 산림용 제초제입니다.

헝사지는은은 잡관목을 고살시키지만 침엽수에는 안전합니다.

■ 사용적기

- 봄철해빙후(3월 중순~4월 중순경) 토양수분이 많으며 지표식생이 없을 때 토양표면에 골고루 살포

■ 사용방법

- 지존(地拵): 처리지역의 잡관목이나 산야초를 그대로 둔 채, ha(3천평)당 헝사지는은입제 100kg 을 토양표면에 골고루 살포
- 하에(下刈): 침엽수 조림목 주위에 ha 당 헝사지는 은입제 50kg을 골고루 살포.
- 소나무천연허중생신지: ha 당 헝사지는은입제 50kg을 골고루 살포.
- ★ 처리지역에 낙엽 등 피복물이 두껍게 쌓여 있는 곳은 약제 처리 전 피복물을 제거한 후 살포.

榮一化學工業(株) Tel. 555-0471

山地資源化, 林業人的 能動的 參與로

經營과 助長政策으로 轉換

山林稅制 改正推進 - 所得稅, 相續稅
贈與稅, 法人稅

尊敬하는 韓榮錫 會長님

그리고 篤林家를 비롯한 會員 여러분!

오늘 뜻깊은 韓國山林經營者協會의 總會에 즈음하여 그동안 우리林業의 引車 役割을 擔當해 오신 여러분을 모시고 山地資源化政策의 方向에 對하여 말씀드리게 된것을 무척 榮光스럽게 생각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山林은 國力을 象徵하고 國運과 함께 變化합니다.

舊韓末 列強의 利權對象이 될만큼 豊富했던 우리의 山林資源도 日帝收奪期 6.25 動亂期등 부끄러운 歷史와 함께 極度로 荒廢되어 이 나라의 貧困과 後進性을 그대로 象徵하고 있던 時節을 아직도 우리는 生生하게 記憶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荒涼했던 不毛의 山地도 여기 모이신 林業界 重鎮 여러분과 온 國民의 執拗하고 犧牲的인 努力에 依하여 짧은 期間안에 綠化의 奇蹟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그 結果 우리의 山林은 차차 沙漠化 되어가는 地球村의 산 教育場으로서 世界 여러나라에 自然을 回復할 수 있는 슬기로운 方法과 人間의 可能性을 일깨워 주고 이제 國運의 上昇과 함께 林業國으로 발돋움 할 轉機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林業은 아직도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으며 社會·經濟的인 與件變化에 따라 山에 對한 國民의 欲求도 크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綠化는 이룩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山林이 不良林地 입니다.

다시 말하여 經濟林率은 29%에 不過하고, 20年生 以下의 어린나무가 83%를 차지함으로써 國內木材需要의 83%를 外材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한편 木材需要는 해마다 늘어 20年前對比 3배, 2千年代 需要도 3倍以上으로 展望되나 世界 木材資源의 枯渴과 資源保有國의 保護政策強化로 供給與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木材自給基盤造成은 時急한 課題이나 우리 林業의 經營構造 脆弱으로 山林投資를 忌避하고 있는 實情으로서 私有林開發은 沈滯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即 林業의 特殊性인 投資의 長期性과 低收益性, 10ha 未滿이 96%를 차지하는 山地所有規模의 零細性, 山村人力 不足으로 因한 勞賃上昇, 林道の 貧弱과 機械化의 不振등이 私有林經營의 活性化를 沮害하고 있습니다.

한편 人口의 增加와 社會·經濟的 與件 變化에 따라 山地를 國土의 次元에서 草地·農地등 農業用과 宅地·工場敷地 등 多目的으로 活用해야 한다는 國民의 欲求도 크게 늘어나 해마다 1萬ha程度의 山地가 他用途로 轉用되고 있으며, 都市化, 工業化에 따라 山地를 國民保健 및 休息空間으로 活用해야 한다는 山林의 公益的 需要도 急激히 늘어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러한 林業의 現實與件과 國民의 欲求變化에 따라 이제까지 造林과 保護를 爲主로 해오던 傳統的 우리 林業은 山地를 農山村所得源 등으로 보다 價値있게 活用하고, 山林內 休樂空間을 擴大하는 등 새로운 課題를 안게 됨으로써 山林政策의 果敢한 轉換이 不可避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지금까지 推進해온 保全과 規制 爲主의 政策을 經營과 助長爲主로 轉換하는 山地資源化 10年計劃을 山林經營者協會를 비롯한 各界의 意見을 收斂하여 지난해에 完成하고 今年부터 推進하게 되었으며, 그 主된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木材自給率을 높이기 위한 山林資源의 增蓄과 林業基盤의 造成입니다.

山林率이 70% 以上되는 地域 200萬ha를 林業振興地域으로 指定하고 資金, 稅制, 技術등을 集中 支援하여 國內材 70%의 供給基地로 發展시키며, 林業生産性提高와 林業機械化促進을 위해 10年間 林道를 11倍로 擴張함과 아울러 協業經營指導所 310個所와 國有林 91千ha를 確大하고, 適正한 木材價格維持와 流通體系確立으로 山主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山林組合을 林產物流通의 센터로 發展시키고, 間伐材등 小徑材와 低質木의 需要를 創出할 計劃입니다.

한편, 山地의 多目的開發需要에 副應한 山地의 效率的 利用開發體制를 確立하기 위하여 今年과 來年中에 準保全 林地를 農用地와 非農用地 등으로 區分하기 위한 細部調査를 實施하고, '90年度부터 4年間은 다시 保全林地에 對한 調査를 實施하여 不合理하게 區劃된 地域은 實에 알맞게 再劃定할 計劃이며, 準保全林地를 山主의 意思에 따라 草地, 果樹園, 林間放牧, 副產物生産, 休養林地등 山村所得源으로 積極 開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快適한 生活環境을 造成하여 山林의 公益需要를 充足하기 위하여 山林內 休樂施設, 樹木園, 林間學校를 擴大하고 都市周邊에 景觀林을 造成하여 公害緩和와 環境淨化를 圖謀하며 山沙汰 豫防管理와 荒廢溪川復舊擴大로 國土保全機能을 增進시킬 計劃입니다.

이러한 資源化政策을 円滑하게 推進할 수 있도록 支援하기 위해 各種 規制를 緩和하고 經營을 助長하는 內容으로 山林法을 改正하고, 山林組合의 山主中心改編과 自立基盤의 擴充, 大單位 山林開發事業을 專擔할 수 있는 山林開發事業團 設置등을 內容으로 山林組合法을 改正하며, 山林開發基金을 500億圓으로 늘리면서 融資條件등 金融制度를 改善하겠습니다.

이러한 山地資源化 計劃이 完了되는 10年後의 우리나라 山林모습은 人工造林率이 現在の 29%에서 34%로 1.2倍, 林木蓄積은 1.5倍, 林道施設은 11倍, 林業生産額은 1.7倍로 늘고, 山地資源化政策이 規制爲主의 綠化政策에서 벗어나 經營과 助長爲主로 轉換하였다 하여 이제까지의 成果와 既存의 秩序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資源化政策은 治山綠化의 實績을 바탕으로 그 成果를 最大限 살리면서 그 基盤 위에 새로운

國民輿望을 쌓아 올리는 것을 基本精神으로 하는 政策으로서 이제까지 심고 가꾸은 쓸모있는 나무들을 더욱 쓸모있게 가꾸고 보다 값지게 利用할 수 있게 하여 林業을 投資價値 높은 經濟林業으로 發展시키고 收益性이 높은 產業으로 育成시킬 것이며, 山地의 多目的 利用에 있어서도 無作定한 開發을 止揚하고 計劃的으로 均衡있게 開發함으로써 國土의 破壞와 二種投資를 最大限 防止하게 될 것입니다.

篤林家를 비롯한 林業經營人 여러분!

林政史에 새로운 章을 期約하는 山地資源化 政策도 여러분의 意慾의이고 能動的인 參與없이空念佛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政府에서는 篤林家의 權益增進을 위하여 去年에 于先 山林法施行規則을 改正하고, 今年에는 山林法の 改正과 함께 稅制改善을 推進中에 있습니다.

그 內容은

- 造林地에 限해서만 所得稅, 法人稅의 免除와 相續稅, 贈與稅의 控除를 받던 것을 造林 및 育林한 林地까지 擴大하고,
- 이제까지 20 ha 以內的 造林地에 限해서만 相續稅의 控除惠擇을 주던 것을 造林 및 育林한 모든 林地에 對하여 相續稅와 함께 贈與稅까지를 控除하도록 하며,
- 7千萬원까지만 相續稅 控除惠擇을 주던 것을 控除限度를 없애도록 推進하고 있습니다.
- 또한 林業振興地域 또는 指定開發地域內 林地를 같은 事業目的을 위하여 사거나 팔때 從前에는 特殊開發地域內 林地에 限하여 讓渡所得稅, 特別附加稅의 50%까지를 減免하였으나 앞으로는 全額 免除되도록 하고, 登錄稅만을 免除하던 것을 取得稅까지도 免除되도록 改善하겠으며,
- 法人이 造林, 育林등 山林資源造成에 投資하거나 寄附한 金額은 損金으로 認定될 수 있도록 法人稅의 改正도 推進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앞으로 모든 法令·制度의 改善에 있어서는 恒常 林業經營人의 利益을 맨먼저 考慮하고 資源化政策의 推進過程에 있어서도 補助事業이나 伐採量의 按配, 各種 基金의 融資등에 優先權을 認定하는등 篤林家 여러분의 利益 增進을 위하여 最善을 다할 것을 約束드리는 바입니다.

山主와 篤林家를 代表하는 山林經營者協會가 山地資源化政策을 具現시킬 實踐的 主体이면서 山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震源과 核心이라고 볼 때 山林經營者協會의 發展이 바로 山林行政의 發展이며 나아가 山地資源化政策의 成功的 推進이 約束되는 것으로서, 오늘의 總會를 契機로 山林經營者協會와 會員 여러분의 無窮한 發展이 있으시기를 祈願하면서 激勵辭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1988年 2月 26日

山林廳長 鄭 塚 鎮

- 補償對策 없는 國立公園 指定을 反對함 -

本誌는 지난 2月號에 補償對策없는 國立公園指定은 삼가해서 더 以上の 私有財産權 行使에 規制를 加하지 말도록 할 것과 既往의 指定된 法定 施業制限林에 대하여는 適切한 補償策을 講究해 주도록 促求한 바 있다. 本 事案의 重大性을 감안 韓國林學會를 비롯 直接 關聯 團體 一同은 建設部등 關係 行政府處와 기타 關係要路에 建議文을 다음과 같이 提出하였다.

- 편집자 -

建 議 書

題 目 : 補償對策없는 國立公園 指定을 反對함.

現在 國立公園, 道立公園, 郡立公園에 編入된 山林面積은 約 42萬ha에 達하고 있습니다.

이들 自然公園으로 指定된 山林은 自然公園法上 補償規定이 없고 또 一部 施業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기는 했으나 실제 施業은 不可能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山林主人은 所有權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憲法上에 保障된 財産權의 侵害로 지난해 11月末 執權當인 民正黨에서도 앞으로 모든 法定施業制限林에 대하여 補償을 하도록 選舉公約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自然公園으로 指定하는 問題에 대하여 우리 林業人들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 闡名하오니 善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앞으로 가능한 한 私有林은 自然公園으로 指定하지 말고 부득이 指定할 때에는 상당한 補償을 해야 합니다.
2. 既往에 私有林이 自然公園으로 指定된 곳은 不要存 國有林 또는 公有林과 交換하여 주어야 합니다.
3. 國有林이라 할지라도 造林貸付地나 分收造林地등 山林의 地上權이 私有인 경우는 그동안 막대한 造林管理費와 地上權의 買入經費등 많은 投資를 한것인 만큼 適切한 補償이나 產物을 國家에서 買入해야 합니다.
4. 지금 邊山半島 周邊道立公園은 그것으로 充分한 것을 國立公園으로 擴大指定하는 問題도 그 地域의 山主, 山林契長, 里長등 大多數가 反對하고 있는 것이오니 앞으로 自然公園 指定의 濫發을 해서는 안된다고 生覺합니다.

1988. 3.

韓國 林 學 會	會 長	朴	明	圭
韓國 林 政 研 究 會	會 長	金	樟	洙
韓國 山 林 經 營 者 協 會	會 長	韓	榮	錫
韓國 養 苗 協 會	會 長	金	命	源
韓國 海 外 山 林 開 發 協 會	會 長	承	相	培
韓國 木 材 工 業 協 同 組 合	理 事 長	金	根	鎬

(代 表 連 絡 電 話 923-4372)

貴 下

林業團體聯合會 (假稱) 結成키로

韓國林政研究會 (會長 金樟洙) 를 비롯 林業關聯團體長등 幹部 任員 10 餘名은 지난 3.15 林政研究會 事務室에서 林業團體聯合會를 設立키로 發起人會를 갖고 定款案과 事業計劃案을 마련하고 總會는 오는 3.22 에 開催할 것을 協議하였다.

이들 發起人會는 그동안 各급 林業關聯團體가 많이 있으나 이들의 分散된 意見을 綜合調整 統合하는 機構가 없어 不便을 느껴왔고, 聯合會를 組織하여 林業人의 念願이었던 林業新聞(週報)의 發行과 諸般施策建議, 林業發展을 위한 啓導事業등 附帶事業을 펼쳐 나가므로써 沈滯된 林業의 活性化와 林業人의 社會的 地位向上을 圖謀함은 물론, 林業發展에 寄與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그런데 이 定款案에 따르면 會員資格은 林業關聯團體와 林業關係學會로 되어 있고 財源은 會費와 基本財産의 果實(利子), 출연금, 贊助金,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는 것인데 尙后 3年 이면 出연금 없이 自体運營이 定着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나무심어 가꾼정성
산불막아 보존하자